

이용섭 광주시장 “여성 고용안정 적극 지원”

광주시, 광산새일센터에서 여성일자리 현장간담회 개최
 구인기업·구직여성 등 의견 청취 및 상호협력 방안 모색
 “여성일자리 위기극복 위해 민관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이용섭 광주시장은 14일 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광산새일센터’)에서 여성일자리 분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특별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맞고있는 여성일자리 분야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인과 구

직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광산새일센터 관계관, 구인기업 대표, 새일센터를 통해 직업교육훈련 등을 수료한 구직여성들이 참석했다.
 새일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취업지원 기관

이다.
 이날 구인기업 대표와 구직여성들은 ▲하남산단(공단) 통근버스 확대 운영 ▲새일여성 인턴사업 강화 ▲경력단절 여성과 기업을 연결하는 지원책 마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 보육시설 운영 등을 건의했다.
 이에 광주시는 향후 하남산단 통근버스 노선 조정·확대, 새일센터 내 놀이방 등 보육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135% 규모로 확대 운영(2020년 328명→2021년 443명) 중인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지원금 상향 등을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관내 5개 새일센터를 통해 새일여성 인턴사업 및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력단절 여성의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여 취업 후 직장 적응 및 고용유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고용여건이 어렵다”면서 “고용 불안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여성 일자리 분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변화하는 고용환경 속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취업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광주·서구·송원대·북구·광산새일센터)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지난해 6천25명, 올해 7월 기준 4천341명의 구직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연계 지원했다.
 /윤규진 기자

전남도, 청년창업 활성화·성공 모색

전남도는 14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업을 위해 도전하는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과 간담회를 열어 창업 활성화와 성공적 창업 정착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윤병태 정무부지사 주재로 진행했다. 지역 특성에 맞춰 유망 스타트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 3년 미만 초기 창업자 1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도내 청년창업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청년 창업자의 성공 창업에 보탬이 될 단계별 지원사업과 지역 투자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단계별 지원사업으로는 창업 정보와 1대1 전문 멘토를 매칭해 컨설팅을 하는 ‘전남옴므창업 종합플랫폼’ 운영, 창업보육에 필요한 입주공간 제공, 창업도약기(3~7년) 기업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지역 투자 지원사업으로는 액셀러레이터 투자, 벤처나라 상품등록 지원, 농수산식품 및 바이오산업 분야 국내외 판로 지원, 개인투자조합 펀드 결성 등 총 14개 사업을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했다.
 윤병태 부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청년창업자에게 고비이기도 하지만 산업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청년창업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용은 기자

전남, 코로나19 극복 국제협력 빛나

14일 인도네시아에 구호물품 발송

전남도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와 중국, 미국, 베트남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는 14일 도청 청사 앞에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중부 술라웨시주 코로나19 구호물품 발송식을 했다. 두 지역은 전남도가 각각 2001년과 2009년부터 우호협정을 해 상호교류를 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체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7월 말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 지부로부터 인도네시아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요청을 받고,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두 교류지역에 대한 지원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발송한 물품은 전남에서 생산하는 보건용 마스크 8만 7천 장이

다.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심각성을 고려해 서자바주에 5만 2천 장, 중부 술라웨시주에 3만 5천 장을 배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구호물품과 함께 발송하는 서한문을 통해 “전남도가 서자바주, 중부 술라웨시주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고자 보내는 구호물품이 두 지역 시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교류지역인 중국 저장성, 미국 메릴랜드주 등 12개 해외 지방정부에 보건용 마스크, 의약품 가운, 장갑 등을 지원했다. 이 중 중국의 10개 지방정부가 전남도에 마스크, 방호복 등을 지원해 훈훈한 우의를 교환하기도 했다.
 10월에는 최근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베트남 건너시와 바리아붕따우성에도 구호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규진 기자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명절음식 소외계층 나눔 김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추석 명절 시민생활안정대책 추진 현장 첫 방문 봉사활동을 가졌다. 김 행정부시장은 직심자 봉사원들과 함께 송편과 전 등 명절음식을 만들어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500가구에 명절음식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주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광주시 제공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d-Revolution

9.1-10.3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장소 |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디자인진흥원 주최 | 광주광역시 주관 | (재)광주디자인진흥원 협력주관 | 광주시립미술관